



조광래호 첫 경기인 나이지리아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감독 및 선수들이 9일 오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로 입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표, 곽태휘, 기성용, 박지훈, 홍정호, 조영훈, 박주호, 이승철, 염기현 선수. /연합뉴스



# 조광래호 첫 출항 “나이지리아 깨자”

### 내일밤 데뷔전... 태극전사들 “눈도장 받겠다” 경쟁 시작

2011년 아시안컵 우승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나선 조광래호가 마침내 첫 출항의 날을 열었다. 조광래(56)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9일 오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나이지리아와의 평가전(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앞두고 소집돼 첫 담금질에 나섰다. 대표팀은 오는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상대로 만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나이지리아와 ‘리턴 매치’를 펼친다. 이날 오후 12시30분까지 파주NFC로 ‘집합 명령’을 받은 태극전사들은 오전 10시

골키퍼 김영광(울산)을 시작으로 연이어 포지션 경쟁을 펼칠 정성룡(성남)이 가장 먼저 입소했다. 골키퍼 선배들에 이어 김보경(오이타)을 비롯해 조광래 감독을 통해 처음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윤빛가람(경남)이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조 감독으로부터 일찌감치 대표팀 재복합으로 인정받았던 윤빛가람은 “첫 합류여서 떨린다. 기회가 온 만큼 꼭 잡고 싶다”며 “대단한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게 돼 긴장된다. 감독님의 축구 색깔에 맞추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겁은 양복을 입고 등장한 조광래 감독은 파주NFC 본관 로비에서 코칭스태프 및 조

영중 대한축구협회 기술교과장과 모여 오늘 첫 훈련의 방향을 논의하고 나서 본격적인 훈련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입소한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감독님 밑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받겠다”며 “포지션 경쟁은 필수적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년여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백지훈(수원)은 “조광래 감독님이 불러주시는 만큼 경쟁에서 이기겠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표팀 명단이 나오고 나니 친구인 박주영(모나코)에게 ‘대표팀에서 잘해보자’는 문자를 받았다. 미드필더로서 경기 조율을 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국 근대5종 세계청소년선수권 ‘최강’

### 단체전 2연패... 김승진 개인전 동메달

한국 근대5종이 2010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고기림과 황우진, 김승진(이상 한국체대)이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헝가리 스키스페헤바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단체전에서 함께 1만6천740점으로 러시아(1만6천564점)를 물리치고 우승했다. 개인전에서 김승진이 5천664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고 고기림(5천600점)이 6위, 황우진(5천476점)이 17위에 올라 개인전 금메달을 놓쳤지만 합산 점수에서는 앞서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대만 대회에서 세계 최강으로 꼽히던 러시아를 꺾고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던 한국의 연속 우승을 일거위해 최강자로 우뚝 섰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황우진, 고기림, 김승진. /연합뉴스



# 메이헌 WGC 우승

### 우즈 18오버파... 80명 중 78위

28세의 젊은 피헌터 메이헌(미국·사진)이 특급대회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을 수확했다. 메이헌은 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골프장(파70, 740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쏟아낸 맹타를 휘둘러 함께 12언더파 268타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슨(이상 미국) 등 톱플레이어들이 출몰했던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메이헌은 지난 2

월 피닉스오픈에 이어 시즌 두번째 우승을 기록하면서 140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3승을 거둔 메이헌은 오는 10월 열리는 유력대표팀과 벌이는 골프대항전 라이더컵 출전권도 확보했다. 함께 18오버파 298타를 친 우즈는 공동 78위로 내려앉았지만 미켈슨이 공동 46위(3오버파 283타)로 함께 부진한 덕에 세계랭킹 1위는 간신히 지킬 수 있었다. 우즈의 이번 대회 성적표는 아마추어 시절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최악의 스코어였고 4라운드 내내 오버파 타수를 적어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 런드PGA투어 첫 우승

### 터닝스톤 리조트 챔피언십

빌 런드(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터닝스톤 리조트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런드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로나의 어트노트 골프장(파72, 748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투어 2년차 런드는 PGA 투어에서 첫 우승의 기쁨과 함께 다음 주 미국 위스콘신주 풀러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출전권도 확보해 기뻐하며 있다. J.J. 헨리(미국)가 1타 차 준우승을 차지했고 제리 켈리, 빌리 메이페어(이상 미국), 마이클 심(호주) 등 5명이 헨리에 1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맨유 커뮤니티실드 우승... 박지성 선발출장 활약

### 첼시 3대1로 꺾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여섯 번째 시즌을 맺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커뮤니티실드에 선발 출전, 통산 18번째 우승에 힘을 보태면서 새 시즌을 산뜻하게 시작했다. 박지성은 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웹블리구장에서 끝난 ‘맞수’ 첼시와

2010 잉글랜드 커뮤니티실드 경기에서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을 뛰고 후반 시작과 함께 루이스 나니와 교체됐다. 정규리그인 프리미어리그 개막에 앞서 열리는 커뮤니티실드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과 FA컵 챔피언 간 단판 승부로 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다. 지난 시즌에는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우승을 독차지해

이번에는 리그 2위 맨유가 출전하게 됐다. 커뮤니티실드 역대 최대 우승팀 맨유는 안토니오 발렌시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연속골로 살로몬 칼루가 한 골을 넣는 데 그친 지난해 챔피언 첼시를 3-1로 꺾고 통산 18번째 대회 정상에 올랐다. 2005년 7월 맨유에 입단한 박지성이 커뮤니티실드에 출전해 우승을 맛본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b>8월 10일(화)</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0일(화) 7시30분 일주제육관 출발(7시40분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11일(수)</b>	▲광주청정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1일(수)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출발(8:00 교원공제회관, 8:10 예술회관 후문, 8:20 동광주교구)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46-2548
<b>8월 12일(목)</b>	▲e-조선산악회 산행문의 : 010-8591-0091
<b>8월 13일(금)</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3일(금) 7시30분 일주제육관 출발(7시40분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14일(토)</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4일(토) 7시30분 일주제육관 출발(7시40분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15일(일)</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5일(일)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16일(월)</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6일(월)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17일(화)</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7일(화)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18일(수)</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8일(수)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19일(목)</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19일(목)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0일(금)</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0일(금)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1일(토)</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1일(토)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2일(일)</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2일(일)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3일(월)</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3일(월)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4일(화)</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4일(화)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5일(수)</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5일(수)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6일(목)</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6일(목)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7일(금)</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7일(금)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8일(토)</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8일(토)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29일(일)</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29일(일)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30일(월)</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30일(월)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
<b>8월 31일(화)</b>	▲광주신원초등학교 전남 기념 8월31일(화) 7시 일주제육관 출발(7시30분 배운동 로터리, 7시40분 배운동 로터리, 7시50분 배운동 로터리, 8시 문예회관후문) 8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11-634-0776